



왕벚나무 / *Prunus yedoensis* Matsum.

---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벛나무속
과국명	장미과
과명	Ros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장미과 낙엽 활엽 교목으로 제주도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제주도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교목.</p> <p>크기 : 높이 15m.</p> <p>꽃색 : 붉은색</p> <p>개화기 : 4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타원 같은 달걀 모양이며 점첨두 원저이다. 뒷면의 맥 위와 잎자루에 털이 있다.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이중 톱니가 발달했다. 꽃은 4월 초~중순에 하얀색 또는 붉은색으로 잎보다 먼저 핀다. 짧은 편평꽃차례에 3~6개의 꽃이 달린다. 작은 꽃대는 길며 털이 있고, 꽃받침통은 원통 모양이며 털이 있거나 없다. 암술대에는 털이 있다. 열매는 핵과고 둥근 공 모양이며 검은색이다. 6~7월에 익는다. 어린 가지에 잔털이 있다.</p> <p>나무껍질은 평평하고 넓으며 회갈색 또는 어두운 회색이다. 원뿌리와결뿌리가 있으며, 잔뿌리는 많지 않다.</p> <p>햇빛에서 자라는 나무이며, 땅의 깊이가 깊고 기름진 곳에서 양호하게 자란다.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겨울을 나기 힘들다. 양지에서 꽃이 잘 피며 바닷바람에는 강한 편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저항성은 보통이다. 수명이 짧고 병과 해충에도 약하다. 한라산의 해발 500~900m 사이에 드물게 자란다. 씨앗을 뿌리거나 꺾꽂이를 하여 번식시킨다.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은 둥근 공 모양처럼 보인다.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에 있는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56호, 제주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59호,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에 있는 것은 천연기념물 제 173호로 지정되었다. 일본 사람들은 떡을 벛나무 잎에 싸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벛나무떡이라 부른다.</p>